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PyeongChang 2018™ OLYMPIC GAMES	 PyeongChang 2018™ PARALYMPIC GAMES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7.10. 6 (금)	담당자	Tammy Chung 323-936-3015	

한국전통무형문화 전수 워크숍 <흥타령, 동부민요> 개최



- ▶ 사업명 : 한국전통무형문화 전수 워크숍 <흥타령, 동부민요>
- ▶ 강사 : 김수연, 박수관
- ▶ 일시 : 2017.10.13.(금) 13:00-17:00
- ▶ 장소 : LA한국문화원 2층 컨퍼런스룸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첨부자료 : 사진자료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한국전통문화의 올바른 보존 및 분야별 전승기회 제공을 위해 "한국전통 무형문화 전수 워크숍" (Traditional Korean Cultural Heritage Workshop) 다섯번째로 김수연 명창(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 (사)김세종제춘향가보존회 이사장)과 박수관 명창(델픽세계무형문화재 동부민요 예능보유자,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9호 동부민요 예능보유자)의 <흥타령>과 <동부민요>를 10.13.(금) 13:00 문화원 2층 컨퍼런스룸에서 전수한다.

김수연 명창이 전수할 <흥타령>은 남도민요로 전라도 지역에서 불리는 노래이다. 곡의 후렴부분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령’·‘화초사거리’에 이어 남도 입창으로 불리기도 한다. ‘흥타령’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기 민요 ‘천안 삼거리’와 구별하기 위하여 ‘남도 흥타령’이라 한다. 흥타령이란 이름은 “아이고 대고 어허 흥- 성화가 났네 헤-”라는 후렴에서 기원하였으며, 중모리장단에 육자백이토리*로 구성되어있다. 애절한 느낌을 지닌 노래로, 가사의 내용은 주로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

* 육자백이토리 : 전라도 지역과 그 인접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음악어법으로 남도토리라고도 불림

박수관 명창이 전수할 <동부민요>는 우리나라 백두대간인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일대에서 불리는 민요로, 호방하면서도 민초들의 애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소리다. 이들 지역에서 불리는 노래들은 서로 비슷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메나리토리’**라고 하는 독특한 음계 구조를 갖고 있다. ‘메나리토리’란 이 지방의 민요나 무가(巫歌)에 쓰이는 음계를 지칭하는 국악 용어로서 그 창법이 매우 애절하다. 동부민요의 대표적인 곡은 전쟁가, 백발가, 영남 모노래, 상여소리, 치이야 칭칭나네, 장타령, 상주 함창가, 상주 아리랑, 영동 아리랑, 동해 뱃노래, 정선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한오백년, 신고산 타령(어랑타령), 궁초맹기 등이 있다.

** 메나리토리 : 동부지역에서 전승된 민요, 무가, 기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음계이자 선율로, ‘메나리조’라고 불림

이번 워크숍 참가를 통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공연자 및 일반인들에게 한국 전통 국악의 폭과 깊이를 새롭게 배우고 체험하고 전수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강사 소개>

김수연

국가무형문화재 제 5 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

(사)김세종제춘향가보존회 이사장

(사)한국판소리보존연구회부이사장

박초월(朴初月), 성우향(成又香) 명창 사사

국립국악원 지도위원

김수연 판소리 연구원 원장

박수관

델픽세계무형문화재 동부민요 예능보유자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9 호 동부민요 예능보유자

아리랑 오대명창(五大名唱) 선정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대구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 역임

러시아 국립글링카음대 명예음악학박사 · 명예교수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끝/